

수덕사근역성보관, 월간미술상 수상

사찰박물관 위상 높아져

사찰박물관은 더 이상 도난 방지를 위한 유물 수장고가 아니다. 다수의 사찰박물관이 사찰 축의 무관심, 무계획한 운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몇몇 사찰박물관의 참신한 기획과 운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사찰박물관 활성화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

수덕사근역성보관이 월간미술 주최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돼 10월 10일 로망갤러리에서 수상할 예정이며, 통도사성보박물관, 대원사 티벳박물관 등 몇몇 사찰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과 특별전을 공동개최하는 등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주목받은 바 있다. 북장 가운데서도 특히 직물·의류에 초점이 맞춰져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개월 전시 기간 동안 찾아온 관람객만도 1만8천명에 달한다. 또한 공예 제작한 '지심귀명례전' 도록은 1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1000부 가까이 팔렸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2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특별전 '행화, 그리고 현대적 읽기전'을 9월 28일부터

대 이어 춘천국립박물관과 특별전을 가질 계획이다.

원주 명주사고려화박물관(관장 선화)은 교육기능이 돋보이는 곳이다. 고려화박물관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선정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기관으로 선정돼 관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화체험관도 지었다.

■ 성공비결은 특화전략과 관리자 열정

아직도 상당수의 사찰박물관이 유물을

국공립 박물관과 잇따라 특별전 공동 개최

특화전략·꾸준한 연구로 기능 업그레이드

11월 27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과 공동개최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전시실 운영 외에도 지역민을 위한 문화강좌,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폭 넓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특별전 '한국고승진영전-깨달음의 길을 간 열굴들'에서 백여 점이나 되는 진영을 동시에 전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지지성보박물관(관장 흥선)은 이 범종·금석문 등의 탁본 특별전을 여러 국공립박물관에서 순회전시 한 바 있다.

전남보성 대원사티벳박물관(관장 현장)도 지난 8월 광주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광주에서 '인도세밀화 특별전'을 주최한

보관해두는 '창고'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몇몇 사찰박물관이 일반 국공립박물관과 대등한 수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들 사찰박물관의 성공비결을 특화전략과 관장 및 학예사의 열정에 있다고 본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하면 불화가, 지지성보박물관 하면 금석문이다. 수덕사근역성보관 하면 직물·의류가 떠오르는 것은 이들 박물관이 특화된 성공했음을 뜻한다. 대원사티벳박물관이나 명주사고려화박물관은 각각 인도세밀화와 고려화라고 하는 특화된 콘셉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 독보적인 박물관으로 이미지를 굳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수덕사근역성보관의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특별전' 전시실. 이 기획전은 2004년 10월 11일~11월 10일 열렸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7>

달이야기

시(詩)를 읽다보면, 동양시와 서양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양의 시가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주제를 택했다면(비록 대상이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동양의 시는 자연 속의 일부로서 매몰된 정취를 노래한다.

특히 가을의 달 만큼 동양의 시에 자주 등장한 소재도 없다. 안록산의 난 당시 흩어졌던 동생들을 그리면서 지었던 두보의 '월야역사제(月夜憶舍弟)', 그리고 당나라 3대 시인 중, 가장 회화적인 시를 지었다는 시불 왕유의 시중 대나무 숲에서 보는 달빛을 표현한 '명월래상조(明月來相照)'는 참으로 시에 그림이 있다고 하는 옛사람의 비평이 허구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

명을 점치기 위해서 알고 노력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의 천체의 위치들이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달이 미치는 오묘한 인력들의 조합이 인간의 생체를 결정한다는 다소 신비적인 믿음이다.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lunar'는 영어로 달을 나타내고 여기에 파생된 'lunatic'은 '약간 미쳤다'는 뜻이다. 보름달일 때 자살률이 많다는 경험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최근에 과학적으로 보름달과 인간의 심리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인간과 보름달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미력하기는 하지만, 바닷물

달과 인간의 상관관계 규명 노력

과학·종교·시인의 입장은 같을까?

다. 특히 달이 찾아와서 서로 비추는 장면에서는 시에서 그림을 느낄 수 있으며, 선적인 경지까지도 읽힌다. 마음을 조용히 두었을 때 단순히 대상으로 느껴졌던 바깥의 사물들이 나의 마음에서 녹아버리는 느낌을 서로 비추는다고 표현한 것만 같다.

이와 같이 동양의 시에 달이 많이 등장하는데 반해, 부처님 경전에서는 달이 등장하는 예가 드물다. 음양의 조화를 중시했던 중국의 문명과는 다르게, 태양의 에너지를 더욱 강조했던 인도 문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인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인도 문명의 강렬한 에너지에서 감명을 받는다고 한다.

달은 왜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가. 역사적으로 점성술을 포함하는 신비과학에서는 천체와 인간의 운

의 조수를 결정하는 달과 물로 이루어진 인간(아니 생물 전체)의 미세한 생체 리듬의 영향을 부정하기 또한 힘들다. 여성의 배란 리듬이 달의 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 전에 가끔은 어느 태평양의 어느 섬, 인적이 없는 바닷가(아니 해운대 바닷가)에 홀로 대피하는 달빛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바닷물의 파도소리를 생각해 보자. 과연 그 바닷가의 적막은 나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문득 관련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수 억년 동안 '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온 수많은 달빛에 대한 기억들 때문은 아닐까.

파도 소리의 들고 낚아서 소리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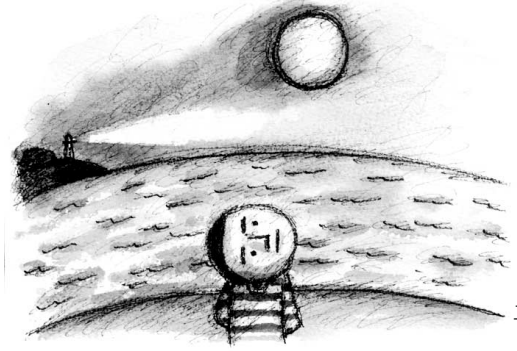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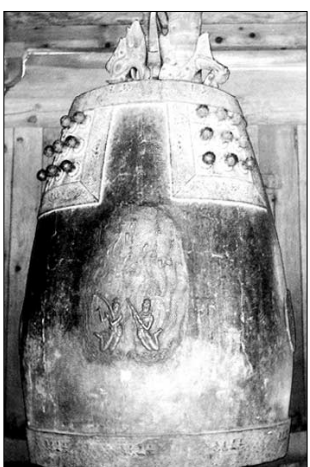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725년 주조된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상원사 종소리 달라졌다

1979년 용접보수 후 맥놀이 주기·진동수 변화

현존하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725년 주조)의 종소리가 1979년 용접 보수 이후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일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 '상원사동종의 종합적 검토'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이장무 교수(기계항공공학부)의 논문 '상원사동종의 음향학적 고찰'에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실시한 진동음향 분석

결과와 1976년 옛 영영하 서울대 교수의 것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용접 전 동종의 기본 모드 진동수는 102~104Hz였으나 최근 실측값은 105.5~105.72Hz로 변했고, 맥놀이 주기도 용접 전 0.495초였으나, 최근 실측값은 4.54초로 늘어났다. 맥놀이 주기가 길면 소리가 울렁한 반면, 주기가 짧으면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또한 동종에 타격을 가하는 지

점인 당좌의 적정위치를 조사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맥놀이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상적인 당좌 위치는 원래 당좌위치에서 반시계방향으로 24°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국제학술회에서는 나형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상원사동종의 주조기법 및 금속학적 고찰'을 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이 '상원사동종이 지닌 한국법종에서의 위치와 중요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나 교수는 상원사동종의 무게는 1226kg이며,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종구 밑면에 설치한 4개의 주입구를 통해 하주법으로 용탕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New 2005년 오디오통경대전집 **佛經大全集 탄생**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소유보살경)

불경대전집 수록내용
천수경, 정법연꽃, 아미타경, 화엄경 약한계, 반야심경, 교왕경, 목각상, 무상계, 관음경전, 금강경, 반회심경, 천수경, 화엄경 약한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회상 발원문, 천지발원문, 선화경, 조왕경, 부두경, 범회경 약한계, 신심경, 보현행원문, 범회심경, 지장경,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석가모니불경, 약사여래불경, 관세음보살경, 지장보살경, 화엄경 중경, 마하반야바라밀경,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우리말 관세음보살보문품경, 우리말 나옹회상 발원문,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우리말 범회경, 우리말 무상계 경회 스님 참선곡, 부도중경, 우리말 천지발원문, 나옹스님 도공경, 회심곡(가사), 우리말 보현행원문, 우리말 지장경, 우리말 금강경, 현대어 부모은중경, 명상의 말씀(맑은 미레를 향하여), 명상의 말씀(2)명, 진리를 말리라고, 명상의 말씀(3)명(성현을 따라) 명상의 말씀(4)명(부처의 본을 따라), 회심곡(가사), 담달이

◆ 수록시간 : 25시간 07분
◆ MP3용 : CD1장 + 고급우단 케이스 가격 = 25,000원
◆ 일반CD용 : CD23장+휴대용 CD자켓 가격 = 60,000원

부처님의 말씀은 수 많은 경전으로 엮여져 무량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이 작은 CD로 감히 엮어 선을 보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부디 이 「불경대전집」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P3 CD 1장 컴퓨터, DVD, MP3CD 플레이어 용

은행계좌 : 제일은행 186-20-017075 예금주 : 흥선회

티비에스시(TBSC) www.tbsc.co.kr T.3274-1198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58 용산전자 0/1116호

화제의 신간 다시 보는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더라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중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그림 당사주 대전 |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김백만 판자/40,000원 | 4x6배판/이선중, 전호일 공저/25,000원 | 신국판/양정분/김성진 지음/30,000원 | 신국판/양정분/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회와 후대전회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가게·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공할 보는 법
● 대인관계(사건·교제·결혼·취직)의 공할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사형,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당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고 이혼을 금중!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의 심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허 가르쳐 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